



기독교사회복지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EXPO 2010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섬김과 나눔의 행복축제

[www.c-expo.org](http://www.c-expo.org)

#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 대성대회

# 복지의 희망을 여는 한국교회 여성

- | 일시 | 2010년 10월 15일 금요일  
오전 10:00 ~ 오후 4:40
- | 장소 |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

|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2010 조직위원회 |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섬김과 나눔의 행복축제

[www.c-expo.org](http://www.c-expo.org)

기독교사회복지EXPO 2010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복지의 희망을 매는 한국교회 여성

**여 성 대 회**

## 인/사/말



김 삼 환 목사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대회장, 명성교회 당회장)

한국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았는지, 마치 한국 교회의 성취가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 낸 성과인양 자만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풍성하게 받은 축복과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 자신을 위한 소비는 줄이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나눔은 더 크게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진정한 희망이 되기 위하여 교회는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며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부흥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민족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 아픔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참된 생명이 있고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과 구원의 방주임을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은 한국교회가 주님의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다양한 행사와 자료를 제공하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사랑과 수고와 눈물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바라오며, 모든 과정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 환/영/사



이 영 훈 목사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조직위원장,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의 역사속에서 지난 125여년 한국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 를 돌보는 일에 앞장 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여 한국교회가 실천해 온 다양한 섬김의 모습은 한국사회발전 에 크게 기여하였고, 많은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은 현재 한국 사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교회와 기독교 사회복지단체가 한 곳에 모여 지금까지 실천해 온 그 귀한 사역을 한국교회가 사회 앞에 알리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엑스포가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섬김의 사역을 다하고 있는 교회와 단체에는 따뜻한 격려를, 새로운 복지사역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와 단체에는 힘찬 용기를,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알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엑스포를 통해 한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복지사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됨으로 기도와 참여, 후원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 / 차

### Ⅰ 개 요 Ⅰ

- ▶ 기독교 사회복지 EXPO 2010” 개요 ..... 7
- ▶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의 주요사업 ..... 8
- ▶ 기독교 사회복지 EXPO 2010 여성대회일정표 ..... 10
- ▶ 기독교 사회복지 EXPO 2010 여성대회 조직 ..... 11
- ▶ 기독교 사회복지 EXPO 2010 여성대회 결의문 ..... 12

### Ⅰ 발 제 1 Ⅰ ..... 13

“기후변화와 교회의 대응”

\_김 기 석 목사(에너지시민연대)

### Ⅰ 발 제 2 Ⅰ ..... 20

“통일 준비와 여성”

\_통일부 전 차관 홍 양 호

### Ⅰ 발 제 3 Ⅰ ..... 30

“저출산 고령사회와 가족문제 : 교회의 역할과 과제”

\_김 혜 경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Ⅰ 종합토론 Ⅰ

나눔 사회 / 섬김 목회 / 복지 선교 나눔 사회 / 섬김 목회 / 복지 선교  
“기독교 사회복지 EXPO 2010” 개요

▶ 명칭 및 표어

국문명칭 : 섬김과 나눔의 행복축제 - “기독교사회복지 EXPO 2010”  
영문명칭 :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주제표어 : “섬기는 기쁨 나눔의 행복”

▶ 주제성구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16절)

▶ 기간 및 장소

행사기간 : 2010년 10월 13일 ~ 16일  
행사장소 : 여의도순복음교회, 여의도한강시민공원

▶ 개최목적

교회와 사회를 향한 기독교 사회복지의 역사를 조명하고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하여 기독교 사회  
복지 자원과 방법을 개발하고 교계 사회복지 역량을 결집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해 간다.

▶ 개최목표

- 1) 양적, 질적 성장
  - 한국교회 사회봉사의 총결집(부스와 자료종합)
  - 한국교회 사회봉사 현황파악
  - 한국교회 사회봉사 사역의 정체성과 방향성 모색
- 2) 자원과 실천방법개발
  - 인적, 물적 자원 개발
  - 제도권내의 전문 사회복지 사역
  - 교회 독자적인 사회봉사 사역
- 3) 역량결집
  - 사회봉사 단체들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동력화
  - 16개 광역조직과 10여 대상별 연합조직화
  - 한국교회사회봉사 백서 발간

▶ 참여대상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와 사회봉사에 관심있는 일반인, 목회자, 평신도,  
신학과 사회복지학 관련 교수 및 학생, 중고등부와 대학생(청년)부 교사, 학생, 선교 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기업 및 공공기업(단체), 언론기관 등 누구나

▶ 조직기구

주 최 : 사)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교회희망봉사단  
주 관 :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2010 조직위원회  
후 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을위한교단장협의회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CBS기독교방송, CTS기독교티비, 국민일보, 극동방송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사업내용

개막식, 학술심포지엄 및 워크샵, 사회복지 전시행사, 콘서트, 자원봉사대회, 다문화축제,  
여성대회, 지역봉사단 조직, 지역대회, 사회복지실천결의행사 및 실천사업의 지속적 활동

#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의 주요사업

## 1. 조직사업

현재 12개 지부형태의 조직을 활성화하고 전북과 제주 등의 신설과 광역시도 단위의 조직을 분리하여 16개 광역시도의 조직을 구성하고, 광역단위별로 엑스포 준비를 위한 조직을 세미나와 함께 하의상달 형태의 지역사회의 교회봉사를 구축한다. 더불어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와 읍면동 단위의 교회봉사단을 시범적으로 구성 운영한다.

기독교가 관련되어 사역하는 사회복지 영역과 대상자별 조직을 확대하여 연합회를 구성하여 기독교 사회복지의 정체성과 교회 연관성을 더 공고히 하여 기독교사회복지의 네트워크를 탄탄히 세운다.

## 2. 국제학술대회 및 복지분야별 세미나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을 대표하는 기독교계 지성으로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살펴보고, 한국교회가 전문적, 체계적으로 사회봉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회사회사업의 정체성, 기술, 지침, 사례를 제시함과 동시에 한국교회가 마지막 사회안전망 기능을 감당하기 위한 생명운동의 다양한 실천영역과 이에 따른 교회 역할을 제시한다.

## 3. 목회자대회

한국교회의 선교적 위기 상황에서 교회의 성숙과 부흥을 위한 복지목회의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을 위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네트워킹과 정보교류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화해중재사역을 포함한 지역사회복지선교의 필요성과 방법론을 체득하는 자리로 만든다.

## 4. 여성대회

한국기독교 역사 안에서 여성 복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여성 복지의 기독교적 사명을 정립하며, 여성복지와 여성을 통한 복지 증진을 위해 중요 사업의 선정과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며, 여성 자원을 조직화 자원화 동력화 하는 일을 하고자 한다.

## 5. 기독교 사회복지인대회

사회복지 각 영역에서 종사하는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정신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펼치고 있는 교회사회 복지, 사회복지재단 등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섬김의 정신에 대한 축하와 격려를 하고, 한국사회에 기독교사회복지의 중요성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 6. 전시행사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독교사회복지의 현장을 영역별로 분류하고 기획하여 지역교회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전시장을 마련하여 시청각적인 효과를 통해 지역교회가 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전시는 사회복지역사관, 한국교회아이티연합관, 서해안자원봉사관의 기획전시관과, 아동 및 여성복지 전시관, 장애인복지 전시관, 노인복지 전시관, 지역사회 및 재가복지 전시관, 의료복지 및 호스피스 전시관, 해외구호단체 전시관, 교회가 운영하는 복지재단의 주요사업 전시관으로 구성한다.

## 7.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행사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군을 선정하여 전국적인 결연과 지원을 통해 한국교회가 사회의 희망을 만드는데 앞장서 일반 시민과 소통하며 우리교회를 사회에 알려 한국교회가 보다 더 성숙한 이미지로 사회에 드러나도록 한다.

## 8. 2010 한국교회사회봉사 백서 발간

한국교회가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회봉사사역의 내용을 계량화하여 통계를 종합적으로 담아내 교회와 정부 그리고 학계와 관계기관에 배부하여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사역을 객관적 수치로 통계를 발표한다.

# 기독교사회복지EXPO 2010 여성대회

하나님은 여성을 생명의 근원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복된 삶을 여성들로부터 시작하여 여성들로 인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본 여성대회는 한국기독교 교단, 여성 기독교 NGO 단체들이 연합하여 여성자원을 조직화 자원화 동력화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여성들의 총력을 묶어 한 민족과 온 인류의 복지미래를 열어가는 큰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1. 주 제 : 『복지의 희망을 여는 한국교회 여성』
2. 일 시 : 2010. 10.15(금) 10:00-17:00
3. 장 소 :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
4. 행사일정 :

시 간	순 서	내 용	비 고
10:00 -10:20	경배와찬양	위트니스 찬양인도	1부사회 : 박홍자 장로 공동대회장, 준비위원장
10:20 -11:20	개회-예배	개회선언 : 변도윤 전여성부장관 목 도 : 다같이 찬 송 : 580장(삼천리반도금수강산) 기 도 : 최은영 장로(세계감리교여성회아시아회장) 성경봉독 : 전영순 사모연합회회장 /겔 37:1-10 특 송 : 박일권 교수(한영신학대학교) 찬 양 : 평화의기도 연합찬양대 (지휘:여홍은 교수) 말 씀 : 손인웅 목사(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상임대회장 덕수교회)	
11:20 -11:40	기독교성 자원봉사단 발대식	봉사단 역할 : 전숙희 교수(지식나눔연구소) 봉사단 선서 : 최상옥 권사(예정백석), 조청자 권사(기하성) 헌신의 기도 : 임형근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11:40 -12:10	축하공연 (워십)	한빛누리선교무용단 공누리 교수(경기신학교)	
12:10 -12:20		에벤에셀 몸찬양	
12:20 -13:00	중 식		
13:00 -13:20	찬 양	위트니스 찬양인도	2부사회:김현숙소장 서초자원봉사센터
13:20 -14:00	발제1	기후변화대응과 여성 -김기석 목사(청파교회, 에너지시민 연대)	
14:00 -14:40	발제2	통일준비와 여성 -홍양호 전차관(통일부)	
14:40 -15:20	발제3	고령사회에서의 가족 -김혜경 교수(백석대학교)	
16:10 -17:00	폐회-예배 결단	특별찬양: 국민일보전속찬양단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마음다짐(결의문)낭독 : 김형자 권사(기성), 이복숙 권사(예정대신) 결단기도 : 임성이 장로(기감) 찬 양 : 국민일보전속찬양단 축 도 : 신경하 감독(태화종합사회복지재단 이사장) 폐 회 송 : 국민일보전속찬양단	3부사회:고영자권사 공동대회장

# 기독교 사회복지 EXPO 2010 여성대회 조직

<b>고 문</b>	김성혜(한세대총장), 김옥라(각당복지재단 이사장), 이광자(서울여대 총장), 이연옥(예장통합여전도회전국연합회 명예회장)
<b>대 회 장</b>	변도윤 전여성부장관
<b>공동대회장</b>	강교자(YWCA 연합회 회장), 고영자(기하성 여의도), 권복주(예장통합), 김금여(구세군), 김형자(기성), 박상옥(예장합신), 박홍자(한기총공동부회장), 이미영(예장중앙), 이복숙(예장대신), 임성이(기감), 장은화(한국어머니기도회회장), 전성원(사)한국기독교문화사업단회장, 전영순(사모연합회회장), 전 오(기하성 통합), 조청자(기하성), 조현숙(예장개혁), 최상옥(예장백석), 최은영(세계감리교여성회아시아회장), 한유진(예장한영), 허영미(예성), 홍기숙(한기총여성위원장), 홍승현(그교협)
<b>부 대 회 장</b>	김희진(한국장로교여성협의회회장), 이정희(한국교회여성연합회회장), 이현장(한국여장로회연합회회장), 황성자(한국기독교아가페협의회)
<b>전 문 위 원</b>	강영순의원, 김영숙(선한이웃네트워킹 원장), 김현숙(서초자원봉사센터 소장), 박윤숙(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 박인례(전국주부교실연합회 사무총장), 서영숙(숙명여대 교수), 이경림(부스러기사랑나눔회 대표), 전숙희(지식나눔연구소 교수), 장은실(CUDA국제교육원대표), 한인영(이화여대 교수), 홍월표(미래가족연합회장)
<b>준비위원장</b>	박홍자 장로
<b>총 무 단</b>	총무: 한유진 장로, 부총무: 홍승현 권사 회계: 허영미 권사, 부회계: 양승미 권사 서기: 최상옥 권사, 부서기: 문인순 권사
<b>협 동 총 무</b>	각 교단총무, 정성애(기침)
<b>상임위원장</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획, 조직 위원회 - 김형자(기성)</li> <li>2) 기도위원회 - 임성이 장로(기감)</li> <li>3) 예배위원회 - 고영자 권사(기하성 여의도)</li> <li>4) 찬양위원회 - 여홍은 교수(연합찬양단)</li> <li>5) 진행, 동원위원회 - 이윤희 국장(통합), 홍승현 권사(그 교협)</li> <li>6) 재정위원회 - 민경자 장로(예장통합), 허영미 권사(예성)</li> <li>7) 교육위원회 - 전 오 권사(기하성 통합)</li> <li>8) 홍보위원회 - 조청자 권사(기하성), 홍월표 권사(미래가족연합회장)</li> <li>9) 편찬위원회 - 이복숙 권사(예장대신), 조현숙 권사(예장개혁)</li> <li>10) 문화위원회 - 김금여 총재(구세군), 신숙 권사(예장한영)</li> <li>11) 의료위원회 - 안정희 장로(예장중앙)</li> <li>12) 봉사위원회 - 정성애 권사(기침), 최경희 권사(기하성)</li> <li>13) 지방위원회 - 장은실 권사(기감) -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원주, 인천, 춘천</li> <li>14) 기록위원회 - 최상옥 권사(예장백석)</li> <li>15) 영상위원회 - 홍정옥 권사(예장한영)</li> <li>16) 섭외위원회 - 박상옥 권사(예장합신), 조영희, 정옥선(기하성)</li> </ol>
<b>동역기관체</b>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아가페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여성위원회, 한국여성협의회, 한국여장로회연합회, 한국장로교여성연합회, 사)한국기독교문화사업단, YWCA복지재단, 각당복지재단,

#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여성대회 결의문

“셋째 해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십일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신 26:12)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막 12:31)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지 125년,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양적 성장을 거듭 해왔으나 질적으로는 아직 넘어야 할 많은 과제를 안은 채 한 차원 높은 성숙을 지향하는 변화의 시점에 서 있다.

가난한 여성과 아동, 외국인주민과 노숙자등에 이르기까지 경제 성장의 그림자 속에 고통이 더욱 심각해지는 바로 이때에 교회 성장에 헌신한 교회 여성들이 함께 모여 보다 성숙한 자세로, 이웃사랑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새로운 여성의 역할과 사명의 부르심 앞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은 우리의 사명과 소명임을 알고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님 사랑과 아동, 여성, 외국인주민 등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는 명령을 외면하거나 잊지 않고 실천한다. 기독교 사회복지가 기독교 영성의 구체적 실천이며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며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실천한다.

둘째, 우리는 보다 실천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구제와 자선의 차원을 벗어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전문적 사회복지의 기능과 역할을 받아들여, 이웃사랑의 계명을 기독교사회복지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천으로 확대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세워 나간다.

셋째, 우리가 중심에 서서 협력하여 섬김과 나눔의 교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주신 돌봄의 은사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 되도록 적극적으로 섬기며 나눈다

이같이 우리 한국교회 여성은 이웃사랑의 계명을 예수님처럼 실천하고자 다짐하며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여성대회를 통해 새롭게 거듭날 것을 결의한다.

2010년 10월 15일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여성대회 참석자 일동

## 기후변화와 교회의 대응

에너지시민연대 김기석 목사

### ● 불편한 진실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침대에 오르고 밥그릇에 오르고, 이와 파리와 메뚜기가 들끓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우박이 쏟아져 내려도 바로는 여전히 귀 먹은 자로 살았다. “조금 괴롭군. 하지만 별 일이야 있겠는가?” 그는 내심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어둠이 땅을 뒤덮고 마침내 장자와 만배를 잃은 가족들의 호곡소리 낭자할 때에야 비로소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챘다. 열 번의 재앙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출애굽기는 거듭해서 바로가 고집을 부렸다고 말한다. 고집의 사전적 정의는 ‘자기 의견을 굳게 지킴’이다. 그렇게 본다면 바로는 누군가의 견해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인이다. 문제는 그의 ‘의견’ 혹은 ‘입장’이라는 것이 어리석음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사실이다. 어리석은 자만심은 억지 견해인 ‘독사’(doxa, 臆見)를 참된 인식(episteme)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근대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는 정신적 의미에서 바로의 후예들이라 할 수 있다. 도무지 하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 말이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굿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마16:3) 예수님의 탄식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킬리만자로의 만년설이 거의 다 사라지고, 사람들이 남태평양의 낙원이라 부르던 투발루가 점점 물에 잠겨들고, 북극곰과 펭귄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풍요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눅

17:27) 사람들이 우매했던 선사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다. '풍요의 환상'이 의식 속에 깊이 각인된 이후 사람들은 하늘을 잊었다. 이따금 모두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환경현안이 떠오르면 사람들은 근심스런 표정으로 그 사태를 주시한다. 두려움에 몸서리를 치기도 한다. 그리고는 늘 그렇듯이 이전의 삶을 계속한다.

꿀벌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베이컨에 의해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의 표상으로 등장했던 꿀벌들이 집단으로 폐사한 장면을 보여주는 화면을 보면서 대개는 고개를 가웃하고 지나간다. 그 꿀벌들이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먹는 식량은 벌들의 수분활동을 통해 얻어진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벌들의 폐사 장애(Colony Collapse Disorder)는 식량 생산의 감소라는 결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가뜩이나 국제 곡물가가 폭등하면서 세계 도처에서 식량 폭동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벌들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을 알리는 서곡인지도 모른다. 문제는 벌들의 폐사가 인간의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벌들의 폐사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후변화나 전자파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인 것 같다. 꿀벌들이 살 수 없는 세상은 사람도 살 수 없음을 이 사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 • 우리 시대의 허무주의

세계 각국은 지금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쟁이 그러하듯이 자원 확보전에 뛰어들어든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도덕적 정당성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제적 테러리스트 집단들과의 연대도 마다하지 않는다.

- 석유 정점에 대한 경고
- 석탄 정점도 멀지 않음
- 희귀 금속도 사라지고 있음
- 식량 위기는 현재진행형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지만, 우리가 그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가우뚱거리곤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이다. 비관론자들이 내세우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기후변화 문제는 우리가 풀기에는 너무 큰 문제라는 것이다. 어차피 세상은 돌이키기 어려운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앙적 인식이 아니라 허무주의적 인식이다. 믿음의 반대말은 '숙명론'이라 설명한 신학자가 있다. 그는 할 수 없다는 말보다 더 무신론적인 말은 없다고도 말했다.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해야 하기에 하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다.

둘째,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결국 과학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과학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신화이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과학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셋째, 어차피 망할 세상인데 굳이 그 속도를 늦추기 위해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들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외면한다.

## • 회복의 길은 있는가?

하지만 생태계의 회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이다. 그것도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그런데 이것은 정치나 경제 혹은 기술의 문제이기 이전에 세계관의 문제이다.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생태계의 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길은 있는가? 『생태주의자 예수』의 저자 프란츠 알트는 '있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그 길을 '예수에게서 찾는다. 저자는 지금의 지구촌의 특색을 '넘치는 돈'과 '박약한 정신'으로 표현하면서 생태 일일 뉴스를 이렇게 간추리고 있다. 우리가 이 글을 읽고 있는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 100가지 종류의 동식물을 멸종시키고
- 20,000헥타르(약6천5십만 평)의 사막을 만들어내고
- 8,600만 톤의 비옥한 땅을 침식시켜 파괴하고
- 1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참 대단한 인간 아닌가? 창조의 면류관을 자임하는 인간은 기실 창조세계의 재앙이 되고 만 것이다. 타락이란 바로 이런 현실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세계가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윤희뚱뚱이에 불과하다.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생태계의 신음소리는, 인간의 영혼이 병들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이다. "생태위기를 본질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적인 깊이가 필요하다. 지식과 오성(悟性)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성을 넘어서는 것만으로는 이성(理性)에 도달하지 못한다. 새로운 생태적 지혜만이 우리 안에 있는 좀 더 나은 자아를 일깨울 수 있다. 새로운 생태적 지혜는 오래된 종교적 얽매에 뿌리를 두고 있다."(59)

## • 창조 신앙의 회복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뜻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세상 만물 속에는, 그리고 자연의 질서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닿아 있다. 세상은 '초월자의 암호'로 가득 차 있다는 철학자 칼 야스퍼스의 말이 가리키는 바가 이것이다. 자연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또 하나의 텍스트이다. 자연과 우주적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창조 세계의 특색은 다양성이다.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초목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없어도 좋을 것은 없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을 에덴동산에 두어 "그 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창2:15). 여기에 사용된 두 개의 동사는 매우 중요하다. 그 첫 번째 동사 르오브다(le'ovdah)는 '봉사하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자 종이다. 두 번째 동사 르솨라(leshomrah)는 '보호하다'는 뜻이다. 이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재산을 관리할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임의로 왜곡하거나 착취할 수 없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시 24:1). 성경을 바로 읽으면 인간중심적 태도의 토대가 허물어진다.

하나님은 흙으로 빚어 만드신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는 무엇일까? 어느 랍비는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걸작품들을 보며 '경탄'하기를 바랐다고 말한다. 이런 놀람을 잊어버린 것이 우리의 비극이다. 휘황한 불빛이 달빛과 별빛을 가리듯이, 풍요로운 삶은 우리에게서 '경탄'을 앗아갔다. 구상 시인은 <은총에 눈이 떠서>라는 시에서 "비로소 두 이레 강아지 눈만큼/은총에 눈이 떠서/세상 만물을 바라본다.//지척도 분간되지 않던 無明 속/어둠의 허깨비들은 스러지고/젓바퀴 돌듯 되풀이하던/목숨의 시간들이/신비의 샘으로 흐른다"고 노래한다. 무심히 눈에 스치던 자연의 생성과 소멸이

이적처럼 느껴지기까지 너무나 긴 세월이 걸렸다고 시인은 고백한다.

성경은 하나님-인간-자연이 밀접한 인과관계 속에 있음을 거듭해서 증언하고 있다. 인간의 죄는 땅의 저주로 이어졌고(창3:17-18), 가인의 죄로 인해 땅은 더 이상 효력을 나타내지 않게 되었다(창4:12). 예언자는 땅이 황무지로 변한 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겔15:7)라고 말한다. 희망은 없는가? 아니, 있다. 성경은 사람이 규례를 지키면 땅은 소출을 내고,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레26:4)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영을 보내 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사32:15)이라고 말한다. 이런 조응관계를 가장 탁월하게 보여주는 것은 호세아이다. “그 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호2:21-22)

## • 교회의 사명

교회는 대안적 세상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부풀려진 욕망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이집트를 벗어나, 새로운 세상으로 통하는 길을 닦아야 한다. 경쟁보다는 우정을, 풍요보다는 절제를, 시장적 가치보다 비시장적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세상 말이다. 교회의 본질적 가치로 회자되고 있는 ‘코이노니아’는 신앙과 우정에 바탕을 둔 공생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교회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많다. 홍수와 무지개 사이에서 살고 있는 교회는 환경 친화적 삶, 곧 생태학적 발자국을 가급적 적게 남기는 생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일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할 일이다. 사회적으로는 자족적인 과학의 오만을 경계하는 일부터, 환경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반대하는 일은 생명 지킴이가 되어야 할 교회의 마땅한 사명이다. 생명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이들과 연대하면서 예코 밥상을 차리고, 자연학교 혹은 유기농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라나는 세대로 하여금 생태학적 감수성을 갖도록 돕는 것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교회를 건축할 때도 친환경적인 공법을 택하고,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여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것,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큰 차에서 내리는 것,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는 것도 세상을 돌보기 위한 아름다운 실천이 될 수 있다. 압도적으로 밀려오는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하다. 하지만 생태적인 삶의 실천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호소하는 기도이다.

자본주의 질서가 만들어낸 욕망의 미로에 일단 발을 들여놓은 이들은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음을 안다. 생산-유통-소비의 메커니즘을 추동하는 광고는 우리에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를 가리켜 보이고 있다. 자본주의의 매트릭스 속에 갇힌 이들은 상품을 소비하기보다는 기호를 소비한다. 사람됨이나 관계맺음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치장하고 있는 기호가 한 사람의 생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어 버린 세상에서 우리는 피곤하다. 좋은 차와 넓은 집, 학벌에 탐닉하는 동안 우리 영혼은 점점 납작해진다. 비상을 잃어버린 영혼이 어슬렁거리는 도시에 타락과 폭력이 가득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개발론자들이 불어대는 풍요의 피리소리에 이끌리다 문득 벼랑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급격한 기후 변화와 피크 오일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도처에서 들려온다. 이제는 잠에서 깨어야 할 때이다.

이제는 대안적 삶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에너지 과다 소비로 상징되는 오늘의 삶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 나라마다 온실가스 감축에 비상이 걸렸다. 작년 12월 발리에서 열린 13차 기후변화협약에 참석한 개도국 대표들은 발리 로드맵을 통해 “측정 가능한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유엔 프로세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별 감축 목표를 설정과 의무부담을 통한 적극적인 감축활동을 촉구하고 있다.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린 우리나라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 방향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어쨌든 정부는 최근의 고유가 사태와 관련해 ‘녹색 성장론’을 제시하고 있다. “기름을 덜 쓰고 탄소를 덜 배출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은 맞는데, 그것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지는 더 지켜보아야 한다. 문제는 최근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런저런 정책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삶을 대하는 태도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이런 문제가 풀릴 수 없다. 점점 가혹해지는 삶의 환경은 사회적 연대의 끈을 느슨하게 만들게 마련이다. 연대감의 해체야말로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종교를 뜻하는 영어 단어 ‘religion’은 ‘묶다, 구속하다, 결합하다’를 뜻하는 라틴어 ‘religare’에서 유래한다. 종교는 의례와 이야기, 공동 의식, 상징 등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다.

종교는 서로 다른 것을 한데 묶는다. 그 끈은 ‘사랑’과 ‘배려’이다. 어느 신학자는 기독교인을 가리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존재라고 말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기독교인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기에 세상을 오불관인의 태도로 대할 수 없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세상을 초월적 시선으로 조감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된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고백한다. 이것은 인식의 언어라기보다는 고백의 언어이다. 즉 창조주를 고백한다는 것은 자연과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담론이다.

## ● 청파교회의 실천 사례

침팬지 연구로 유명한 제인 구달은 자연과 환경 파괴라는 절망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희망은 우리 모두가 생물다양성과 지구 환경 보존에 참여할 때 시작된다고 말한다. “생물 다양성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거미줄을 떠올립니다. 생명의 그물이죠. 거미줄이 한 칸 한 칸 찢어지면, 결국 거미줄 전체가 망가집니다.”

환경부 조직/녹색 살림 지침  
환경대학/환경설교  
교회 담장 허물기  
빈 그릇 운동-지렁이 화분/퇴비 만들기  
생명 밥상 차리기/푸드 마일리지 확인  
육식 줄이기  
초록 가게  
농도생협/필요한만큼 구매하고 남김없이 먹기  
햇빛발전소/에너지 빈곤층 지원/solar-cooker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가-자기 컵 가지고 다니기  
멀티 탭 보급  
차 없는 주일  
꽃꽂이 대신 화분으로 강대상 장식  
gas-tax  
재생 용지 활용  
몽골 은총의 숲 조성

# 통일 준비와 여성

통일부 전 차관 홍 양 호

## 1. 문제제기

○ 자유,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복지통일국가의 실현은 우리민족의 역사적 과업이자 대한민국의 헌법상 국가목표이며, 국가전략과제임.

○ 제2차 세계대전이후 동서냉전체제하에서 분단대립해왔던 독일, 베트남, 예멘 등 3개 국가는 이미 통일을 성취하였음.

○ 금년 10월 3일은 동서독이 통일(90.10.3)된 지 20주년이 됨. 독일이 통일되기 전 당시 독일의 정치지도자들은 한국이 먼저 통일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그러나 독일은 우리보다 먼저, 역사가 갑자기 준 통일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공적인 통일을 극적으로 실현하였음. 동독시민들의 민주혁명, 독일민족의 평화혁명 등으로 89.11.9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1년이 못되어 90.10.3 독일은 통일이 되었음. 독일민족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들을 잘 극복하고 이제는 유럽 내에서 최강의 국가로 우뚝 솟았음.

○ 우리사회에서는 한때 독일통일의 사례(서독의 엄청난 동독 지원)를 보고 엄청난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은 가능한 늦추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였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더 많이 들고, 통일비용보다 통일편익(이익)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치 못하고 있음. 대한민국을 더욱 더 선진일류국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을 실현하여야 함.

○ 과거 분단국의 통일사례와 그동안 남북관계사를 통해서 보면,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이 전, 통일과정, 통일후 통합에 대비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통일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 민족적 혼란과 손실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통합을 해나갈 수 있다는 교훈을 얻고 있음.

○ 우리민족은 우수한 민족이고, 그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공적인 건국→산업화→민주화의 실현과 제2차 세계대전이후 신생독립국가중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유일한 국가로 변모한 국가적·국민적 동력을 통일국가 실현이라는 목표로 결집해 나간다면 우리민족도 반드시 한민족 통일국가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 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도 그동안 사회 각계에서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국가사회에 기여해 온 점을 감안할 때, 통일국가 실현에도 지대한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봄. 특히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여성들의 예수님의 사랑(이웃사랑)과 진리에 대한 담대함(용기)을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사회의 통일운동을 견인해 나갈 수 있으리라 봄.

## 2. 분단비용, 통일비용, 통일편익(이익)

○ 분단이 야기하는 경제적 비용은 막대한 국방비, 외교경쟁 비용 등 분단관리의 직접적 비용에서부터 군사적 대치환경에서 발생하는 국가신용도 하락, 투자유입 저해효과 등으로 인한 손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함. 보다 간접적인 경제비용까지 포함하는 경우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의 손실과 이로 인한 경제적 성장잠재력의 차단 등 그 범위는 매우 광범위함.

○ 통일은 이와 같은 막대한 분단비용을 소멸 내지는 절감시키는 방법이 됨.

○ 통일이 되면 위기관리비용, 제도통합비용, 경제발전비용, 사회복지비용 등의 통일비용이 발생되나, 통일의 시기와 방법(점진적이나, 급진적이나), 남북 통합과제의 범위와 수준,

비용지출기간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큰 편차가 남. 그동안 연구자들의 추정치에 따르면 2,000억불수준에서부터 몇조 불까지 편차가 매우 큼. 그리고 대체로 연구자들의 추정치는 독일사례에 많이 근거하므로써, 한반도 경제실정을 고려하지 않아 과장된 측면이 있음.

○ 독일의 경우 인프라 구축 등 경제 분야 투입비용은 20%정도이고, 사회복지비용이 50%를 차지하였음. 그 외 인건비, 국방비, 사용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지원임. 서독의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제도의 동독적용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음. 요즈음은 통일비용을 총비용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총비용에서 동독지역으로부터 거둔 세금을 차감한 순비용으로 계산하거나, 동독지역재건비용에 국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우리의 경우 서독처럼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제도도 아닐 뿐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정책에 따라 북측 지역에 적용하면 되며, 북측지역 경제재건도 우리의 능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됨. 경제재건에 투입되는 비용은 중·장기적으로 투자비용이라 할 수 있음. 통일이 된 후 일정기간(3-5년)이 지나면 하나의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그 이후부터는 통일비용이라고 할 수 없음. 그리고 또한 통일이 되면 엄청난 통일편익(이익)이 발생하므로 통일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음. 조동호박사는 통일비용을 총비용에서 통일편익을 차감한 순비용으로 계산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최근 주한 독일대사는 한국의 능력으로 보아 통일한국은 독일보다 훨씬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통일이 되면 10대강국이 될 것이라고 하였음.

○ 통일편익의 예를 들면, 국방비 및 군수 관련 지출의 절감과 군 병력의 감축, 그리고 외교경쟁에 따른 각종비용의 절감도 따름. 경제적 영역에서 국토규모의 확대와 인구의 팽창(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극복)이 가져다 줄 시너지 효과도 발생함. 북한의 잠재된 지하자원(약 7,000조원)을 이용 할 수 있고, 대륙교통망 연계에 따른 물류비용 및 시간 절약효과가 따름.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자원을 결합한 산업경쟁력 제고도 이루어 짐.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편익이 발생함.

### 3. 분단국의 통일사례와 교훈

○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통일을 고려할 때, 독일과 예멘의 통일사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음.

### 1) 독일

○ 독일은 동독이 자체적으로 서독체제로의 편입을 결정하고 서독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한 사례임.

○ 독일은 통일되기 전 동·서독인의 상호지역 방문이 대규모(서독인의 동독 방문: 1954-57년에는 매년 평균 240만명, 1970년대 중반에는 매년 300만명, 1986년 이후에는 매년 370만명 정도, 동독인의 서독 방문: 1954-57년에는 매년 평균 250만명, 1973-85년에는 매년 130-150만명, 1987년에는 510만명 정도)로 이루어 졌고, 약 25만명의 이산가족 재결합이 이루어졌음. 서독의 주도하에 동·서독 간 청소년, 문화, 우편·통신교류도 활발히 이루어 졌고, 1986년 이후에는 서독과 동독 도시 사이의 62회의 자매결연이 이루어졌음. 또한 내독 간 무역도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스윙(Swing)방식으로 청산결제제도를 운영하여 내독 간 무역을 촉진하였음. 그리고 전략적 상호주의에 따라 프라이카우프(FreiKauf)방식에 의해 약 34,000명의 동독 정치범이 서독으로 송환되었음. 서독이 동독에 차관보증 등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동·서독 간 상호방문 및 여행자유 확대, 여행지 물자교환의 자유 확대, 우편 및 전화 증설, 서독기자들의 동독 취재 확대, 동독 국경지대 탈출자 사살장치 제거 등을 요구하여 실현시켰음. 또한 대부분의 동독인들은 서독의 TV를 시청하여 서독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 통일되기 전까지 약 380만명의 동독인이 서독에 이주하였는데, 통일 당시 동독의 인구가 1,600만명이었으므로 동독인구의 약 5분의 1 정도가 서독으로 이주하였음.

○ 서독은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미국을 제외하고는 소련, 영국, 프랑스가 모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데 대하여 콜(Kohl)수상이 적극적인 통일외교를 펼쳐, 관할권을 갖고 있는 4개 전승국으로부터 독일통일 추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받아 내었음.

○ 서독은 예상을 넘는 동독주민들의 동요와 이에 따른 긴박한 정세 변화 속에서 급속하게 통일협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불가피 동·서독 화폐와 동독인들의 임금, 봉급, 연금 등을 1:1로

교환하고, 동독지역의 재산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동독재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 또한 통일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일 후 통합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갈등을 겪기도 하였음.

○ 통일독일은 동독재건비용과 동독인의 사회보장비용으로 막대한 재정적 소요가 있었으나, 독일국민들의 인내심으로 정치, 법률, 사회제도 통합과 동독경제를 회복하느로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통합을 이룩하였음.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동서독 주민간의 Ossi(게으른 동쪽 것) - Wessi(거만한 서쪽 것)로 심리적 갈등이 표출되었음.

## 2) 예멘

○ 예멘은 남북 예멘 정상 간에 합의를 통해 통일이 되었다가, 다시 내전을 거쳐 북예멘이 승리함으로써 무력에 의해 재통합된 사례임.

○ 남북 예멘은 양 정상이 89.11 통일헌법에 서명하고 남북 예멘 간 대등한 권력배분(예를 들면, 북예멘은 대통령, 국방장관을, 남예멘은 부통령, 총리, 내무장관)을 하므로써 통일이 되었음. 그러나 양측 정부조직은 기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조직은 비대해지고 명령·통제체통이 불명확해졌음. 남북 예멘 지도자들은 정치적 통합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통일 후의 통합정책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음.

○ 통일 후 사회통합의 기초로 내세운 이슬람 교리에 대해 남북 간 갈등이 노정되었으며, 일부다처제, 여성의 사회활동문제, 음주허용 여부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대립하였음.

○ 통일 후에도 남북 예멘 간 갈등이 심해져 남예멘 지도자들은 집무를 거부하고 과거의 남예멘의 수도였던 아덴으로 철수하기도 하였음. 결국에는 무력충돌이 재개되고 북예멘이 무력으로 재통합하였음.

## 3) 교환

○ 통일이전에 충분한 인적·물적 교류협력이 있어야 하며, 특히 활발한 상호 인적 교류가 통일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며, 통일 후 내적 통합에도 도움이 됨.

○ 예멘처럼 위로부터 기계적인 정치 통합 만으로서는 오히려 양 권력층 및 주민들 간의 내적 갈등을 일으켜 내전으로 촉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치적 통일 이전에 다양한 분야의 접촉과 협력을 통해 상호간 신뢰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서독처럼 지속적인 전략적 상호주의에 따라 동독을 계속 변화시켰듯이,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서독이 동독으로부터의 이주민 대책을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가 긴밀히 협력하므로써 동독인의 안정적 서독 이주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동독인들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서독행을 이어지게 했음. 그리고 통일이전에 내적 통합과정을 거치게 했음. 우리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이 필요하고 사전에 통합과정의 실험을 할 수 있음.

○ 통일을 전후하여 국제사회의 적극적 협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통일 전, 통일과정, 통일 후에 적극적인 통일외교를 펼쳐야 함. 특히 통일이전부터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및 민간차원의 조용하면서도 활발한 통일외교가 필요함. 그래서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통일이 되면 불가피하게 통일에 따른 재정소요가 많아질 수 있는 바, 이에 대해 국민적 이해가 평소에 제고되어야 함.

○ 통일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통합대책을 미리 연구, 마련하여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음.

## 4. 통일준비를 위한 기독교여성의 자세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이 가져올 편익을 생각하면서도 통일에 대비해 다양한 측면에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음. 본고에서 논의한 것과 필자의 평소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을 위해 기독교여성이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1)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

○ 무엇보다도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하겠음. 물론 이 분야에 대한 식견이 높은 분도 계시겠지만, 다소 그렇지 못한 분은 이 분야에 대한 식견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이고 꾸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교육기관(대학이나 대학원)이나 사회통일단체에서의 통일강좌 수강이나, 개별적으로 관련 서적(최근 전문서적이 많이 발간된 상태)의 독서를 하면 되리라 봄. 그리고 TV에서의 ‘통일전망대’, ‘남북의 창’ 등을 정기적으로 시청해도 도움이 되리라 봄. 북한의 실상을 좀 더 현실감 있게 느끼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쓴 도서(수기, 소설, 시, 잡지, 전문서적 등)를 읽거나, 북한영화시청이나 북한원전을 읽으면 도움이 됨. 통일부가 운영하는 북한자료센터(국립도서관 내)에 가면 북한영화, 북한서적, 북한신문을 자유롭게 볼 수 있음.

### 2) 남북교류협력 추진

○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 활동이 있었음. 그러나 여성들의 교류는 다소 제한적이었음. 그 주제가 정신대문제, 동북아평화문제 등 정치적 이슈가 다소 중심이 되거나 교류주체가 다소 편향된 감이 있었음, 6·15공동행사의 일환으로 남북여성회의가 1회성 행사로 이루어져왔음. 북한의 체제특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분야의 여성교류를 추진 할 필요가 있음. 정치적 이슈 외에도 여성들이 잘 할수 있는 미술, 공예, 무용, 미용, 요리 등 분야의 교류도 생각 할 수 있음. 또한 대북지원과 여성교류를 연계하여 새로운 여성교류의 활로를 모색하고 장기적인 남북여성 협력 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갈

는 것도 한 방법임. 대북지원 시 의료분야에서 여성 의사, 약사 등이 참여하면 북한의 열악한 의료사정을 감안할 시 지속 가능성이 높으리라 봄. 기독교여성으로서 남북 종교 교류에 적극 참여하여 자연스럽게 남북여성간의 접촉을 통해 상호간의 이해와 여성들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논의도 하면 되리라 봄.

○ 남북여성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 육성, 관련 조직 구성, 그리고 정부지 자체-종교단체 등의 재정적 지원도 있어야겠음.

### 3) 청소년들에 대한 통일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통일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무관심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학교사회에서의 통일교육의 소홀, 학부모들의 학생 개인의 일신상 성공에 대한 기대로 국가적 과제에 대한 관심 저조 등이 미래통일시대를 담당하거나, 통합 과정 속에서 직접 삶을 살 청소년들이 이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등한시하고 있음. 통합촉진요소중 하나로 사회구성원들의 통합(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매우 중요한데 만약 미래 세대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거나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 통일은 멀어지고, 그것은 결국 미래세대가 통일이 되지못함으로써 발생 할 손실을 고스란히 본인이 겪게 될 것임. 청소년들이 통일에 관심을 갖고 의지가 높을 때 통일은 가까워질 수 있고 통일시대를 성공적으로 꾸려갈 수 있다고 봄.

○ 따라서 가정에서는 학부모로서, 학교에서는 교사로서, 사회에서는 선배로서, 교회에서는 신앙의 전도사로서 청소년의 통일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 기독교여성으로서 교회에서나 YWCA등의 사회 종교단체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통일교육프로그램(성인교육도 필요)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교육강사로서 적극 참여하는 것도 통일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 4)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우리사회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약 2만명 정도 정착하고 있음. 그중에 여성은 70%이상 이 됨. 최근에는 여성들의 입국비율이 높고, 가족단위의 입국비율도 높음.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동포애적 인권적 차원에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통일 정책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통일되기 전 사전에 다른 체제, 이념에서 살아 온 우리의 반쪽 동포와 함께 통일실험을 하는 것이며, 향후 통일시 본격적인 사회통합을 할 경우에 대비한 여러 대책을 미리 강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됨. 또한 이들이 남쪽 동포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안정적, 성공적으로 정착해야만, 이들을 통해 북한에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남쪽 동포가 정말로 한동포이고,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살만한 곳이라고 알려질 때, 유사시 북녘 동포들은 중국이 아닌 대한민국과 함께 살기를 희망할 것임.

○ 우리사회의 여성, 특히 기독여성들은 탈북여성, 청소년들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음. 탈북여성들의 취업, 건강, 자녀교육, 가사, 심리상담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봄. 탈북자들의 종교는 기독교가 제일 많은바 교회 내에서 자연스럽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종교단체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음. 대부분의 많은 탈북자들은 심리적 외로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 기독교적 사랑으로 가깝게, 지속적으로 애정을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함. 현재 교회에는 젊은 탈북대학생들이 많은데 이들이 우리사회에서 건전하게 성숙할 수 있도록 정신적 지도를 많이 해주는 것도 중요함. 탈북자들은 외로움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에서, 이유가 어디에 있든 많은 사람들과 깊은 친교를 할 수 없음을 토로한 것을 들은 적이 있음.

## 5) 민간차원의 통일외교 추진

○ 우리나라의 통일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독일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함. 국제사회의 협력은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당시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통일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긍정적 효과에 대해 국제사회의 심정적 지지를 확보해놓으면 순탄하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 외교는 국가이익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바 영향력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의 주요 지도급 인사와 국민들과 평소에 꾸준한 친교를 해 나간다면 우리에게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외교는 국가가 하지만, 세계가 서로 다양하게 얽혀있어 민간차원의 외교가

매우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외교가 국가의 대외행위 추진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수도 있음. 여성들도 주변 국가들의 주요 인사, 특히 여성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해외인사들과 접촉 또는 교류 시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긍정적 효과에 대해 평소 이해를 높혀 나가며, 경우에 따라서는 친구국가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하는 동정적 지지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음. 국제적인 종교연대행사에 참여시도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한반도 통일문제가 회의주제가 되도록 하여 정기적으로 논의토록 하면 국제적 관심 환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임.

## 6) 다양한 분야의 남북통합연구

○ 통일이후 분야별 통합대책이 미리 마련되어 있으면 통합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임. 여성정책연구원이나 대학사회, 민간연구소 등에서 필요한 주제를 발굴해 분야별 통합연구를 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됨. 여성분야, 사회분야, 종교분야, 환경분야, 문화예술분야, 가족문제 등에 연구를 하면 좋으리라 봄. 기독교여성들이 별도로 연구팀을 만들어 특정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음. 연구는 여러 곳에서 하여 상호 토론을 통해 보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현실적합성이 있으리라 봄.

## 5. 마무리

○ 통일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특히 사회지도층 인사가 고민하고, 준비하고,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우리민족의 역사적 과업임. 그리고 우리와 미래세대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문제임. 그러나 분단국의 사례에서 볼 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며, 또한 갑자기 다가올 수 있음.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해야 할 사항임.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반도통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하여야 할 것임. 오늘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2010”에 참석한 기독교여성들은 우리민족의 통일을 간구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반열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줄 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 “저출산 고령사회와 가족문제 : 교회의 역할과 과제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 혜 경

### I. 들어가며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경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18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8년)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가장 빠름)

-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2010년 7월 1일 현재 노인인구 비율은 11%(5,357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증가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80(3.8%)→'90(5.1%)→'00(7.2%)→'26(20.8%)

- 1970년 4.5명에 달하던 출산율은 1983년 2.08로(인구대체수준 2.1) 하락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2년 1.3(초저출산율), 2005년에는 OECD 국가 중 최저인 1.07을 기록하여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온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음(표 1; 2009년 1.15, 통계청. 인구통계연보).

○ 2005년 정부는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 문제가 향후 고령사회의 개인과 사회의 안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국가사회적 대책을 마련하게 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구성,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 플랜(2006-2010)」 수립 등

- 지난 5년간의 다양한 정책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저출산 기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점차 저출산이 초고령 사회의 개인과 사회, 국가에 미칠 경제사회적 여파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음.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문제들은 현대사회의 급변하는 다양한 현상들과 더불어 우리들의 삶의 근간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심각하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음

- 이에 본 발표는 1) 우리사회가 직면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실태와 원인을 간략히 살펴본 후 2)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우리사회와 특히 가족이 직면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3)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제안하고자 함.

## Ⅱ.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실태 : 원인과 문제점

### 1. 고령화 실태 : 특성과 원인

#### 1) 고령화 실태

##### (1) 노인인구 비율과 노인인구 수

- 201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인구의 11.0%, 5백 35만 7천명임.
- 우리나라는 지난 '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사회'에 들어섰으며, 향후 '18년에는 이 비율이 14.3%가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표 1 연령계층별 인구 〉

(단위 : 천명, %)

	1990	2000	2010	2018	2026	2030
<b>총인구</b>	42,869	47,008	48,875	49,340	49,039	48,635
0~14세	10,974	9,911	7,907	6,286	5,721	5,525
15~64세	29,701	33,702	35,611	35,979	33,099	31,299
65세이상	2,195	3,395	5,357	7,075	10,218	11,811
<b>구성비</b>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세	25.6	21.1	16.2	12.7	11.7	11.4
15~64세	69.3	71.7	72.9	72.9	67.5	64.4
65세이상	5.1	7.2	11.0	14.3	20.8	24.3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 (2) 노인부양비와 노령화 지수

- 2010년 노년부양비는 15.0임, 이는 생산가능인구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과 같은 의미임

\* 노년부양비 = 노인인구수 / 생산가능인구수(15~64세인구수) × 100 }

\* 현재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5명이 1명을, '40년에는 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

- 2010년 노령화지수는 67.7로 어린이 100명당 노인인구가 67.7명임

\* 노령화지수 = 노인인구수 / 유소년인구수(0~14세) × 100

\* '16년에 이르면 노령화지수가 100.7로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초과할 것임

〈 표 2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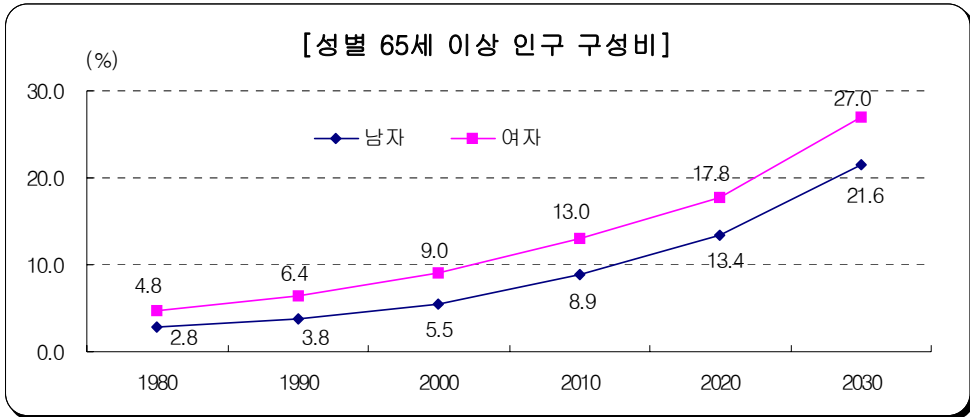
(단위 : 백명당)

	1990	2000	2010	2016	2019	2020	2030	2040
노년부양비 <sup>1)</sup>	7.4	10.1	15.0	18.2	20.6	21.7	37.7	56.7
노령화지수 <sup>2)</sup>	20.0	34.3	67.7	100.7	119.0	125.9	213.8	314.8
노인1명당 생산가능인구(명) <sup>3)</sup>	13.5	9.9	6.6	5.5	4.9	4.6	2.7	1.8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 (3) 성별 고령인구 수와 성비

- 2010년 65세 이상 인구의 성비(여자인구 100명당 남자의 수)는 69.2로 10년 전('00년)보다 7.2명 높아졌으며, 성비는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의료기술 발달,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로 남성노인 사망률이 낮아짐)



[ 그림 1 성별 65세 이상 인구구성비 ]

< 표 3 성별 65세 이상 인구 >

(단위 : 천명, %, 명 / 여자 100명)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남자 전체	19,236	21,568	23,667	<b>24,540</b>	24,680	24,190
65세 이상 (구성비)	545 (2.8)	822 (3.8)	1,300 (5.5)	<b>2,190 (8.9)</b>	3,303 (13.4)	5,218 (21.6)
여자 전체	18,888	21,301	23,341	<b>24,334</b>	24,646	24,444
65세 이상 (구성비)	911 (4.8)	1,373 (6.4)	2,095 (9.0)	<b>3,167 (13.0)</b>	4,398 (17.8)	6,593 (27.0)
성 비 <sup>1)</sup>	<b>59.7</b>	<b>59.8</b>	<b>62.0</b>	<b>69.2</b>	<b>75.1</b>	<b>79.1</b>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 (4) 지역별 노인인구

- '09년 12월말 현재 시도별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전남'이 18.0%로 가장 높은 반면, '울산'이 6.6%로 가장 낮았음
- 전남, 경북, 전북, 충남, 강원 5개 시도는 65세 인구 비율이 14%를 초과하여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
- '09년 경남 밀양시 등 42개 시군구는 고령사회에 진입함(14 ~ 20%미만), 20%를 넘는 초고령 시군구는 67개(232개 시군구 중 28.9%)임

〈 표 4 시도 및 시군구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2009) 〉

(단위 : %)

상 위		하 위		상 위		하 위	
시도	비율	시도	비율	시군구	비율	시군구	비율
전남	18.0	울산	6.6	경북의성	31.4	울산동구	5.1
경북	15.4	인천	8.3	경북군위	31.4	울산북구	5.2
전북	15.0	대전	8.4	전남고흥	31.4	경남창원	5.6
충남	14.8	경기	8.4	경남의령	30.1	울산남구	5.6
강원	14.4	광주	8.7	경남합천	30.0	경기오산	6.0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2009년 12월말 기준

## 2). 우리나라의 고령화 특성

### (1)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진행됨

- 한국의 고령화는 미국, 프랑스 등 기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고령인구 비율이 14%(고령사회)에서 20%(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8년에 불과함

〈 표 5 주요 국가별 인구고령화 진전현황 비교 〉

국 가	도달년도			증가 소요연수	
	고령화(7%)	고령(14%)	초고령(20%)	7%→14%	14%→20%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이태리	1927	1988	2006	61	18
미 국	1942	2015	2036	73	21
스웨덴	1887	1972	2014	85	42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 (2) 지역 간의 격차가 심함 : 도농간의 차이

(3) 빠르게 진행되는 독거노인가구 증가속도

-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주인 '노인가구'의 비중도 '10년 17.4%에서 점점 늘어나 '30년에는 10가구 중 3가구가 노인가구일 것으로 전망
- 65세 이상 노인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의 경우, '10년 총 가구 구성비의 6.0%임. 20년 후에는 11.8%가 홀로 사는 고령자가구일 것으로 예측

〈 표 6 노인가구) 추이 〉

(단위 : 가구, %)

	총가구	노인가구 <sup>1)</sup>	(구성비)	독거노인가구 <sup>2)</sup>	(구성비)
2000	14,507,010	1,733,525	11.9	543,522	3.7
2010	17,152,277	2,982,240	17.4	1,021,008	6.0
2020	19,011,815	4,231,578	22.3	1,512,082	8.0
2030	19,871,144	6,410,665	32.3	2,338,354	11.8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07

주 : 1)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2)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사는 가구

3) 원인

- (1) 평균수명의 연장 : 의료기술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 노인절대인구 증가
- (2) 저출산 추세의 확산 : 노인상대인구비율 증가
- (3) 압축적 산업화로 인한 도농간 인구구성 격차 심화 : 도시화, 농어촌지역 공동화
- (4) 급속한 사회변화와 인식의 변화 : 개인화, 핵가족화, 소가족화, 부양의식변화...

## 2. 저출산 실태 : 특성과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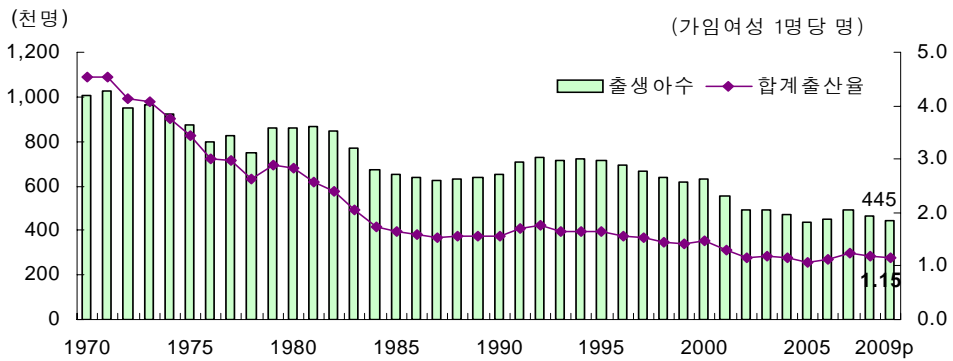
### 1) 저출산 실태

#### (1)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

- 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래 20년간 저출산 현상이 지속, 특히 외환위기 이후 20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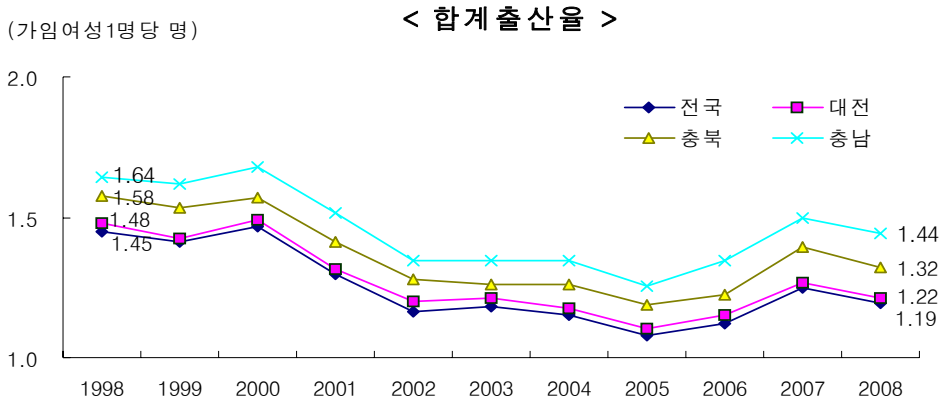
( '07년 출생아 수(50만명)는 1970년 101만명의 절반 수준임

-



[그림 2]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 \* 합계출산율 : 가임여성(15 ~ 49세)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자녀수
- \* 대체출산율 : 인구규모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 2.1명
- \* 초저출산 사회 : 합계출산율이 1.3명이하



[그림 3] 합계출산율 추이

## 2) 저출산의 원인 :

### (1) 사회인구학적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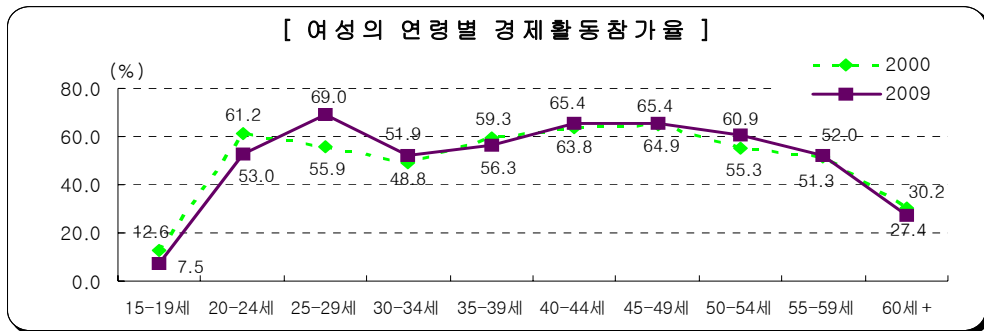
- 인구구조의 변화 : 가임여성 수의 감소
  - 출생아수 저하(조출생율의 저하) --> 낮은 출생율
  - 미혼여성의 증가
  - 만혼 경향과 초혼 출산연령 상승 : 절대 가임기간 축소
  - 불임가족 및 인공임신중절의 증가
- 가족구조의 변화와 양육의 어려움
  - 핵가족화, 분거가족, 이혼가족 증가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 여성의 교육기간 장기화와 취업률 증가
  - 성별임금격차 축소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 부모의 인적 자본투자 증가
- 보육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 보육시설의 질적 양적 불충분

〈 표 7 〉 초혼·이혼 평균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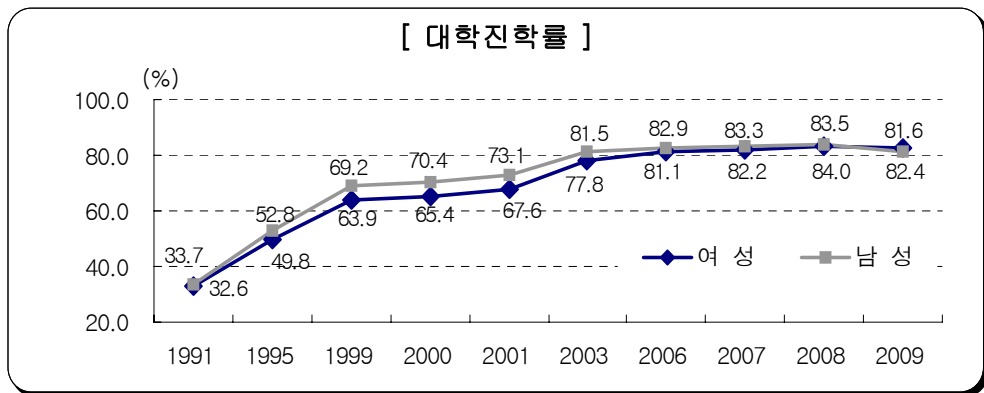
(단위 : 세)

연 도	평균 초혼연령			평균 이혼연령		
	여성	남성	남녀차	여성	남성	남녀차
1990	24.8	27.8	3.0	32.7	36.8	4.1
1999	26.3	29.1	2.8	36.4	40.0	3.6
2000	26.5	29.3	2.8	36.5	40.1	3.6
2008	28.3	31.4	3.1	40.5	44.3	3.8
2009	28.7	31.6	2.9	40.7	44.5	3.8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각년도



[ 그림 4 ]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 그림 5 ] 성별에 따른 대학진학률

(2) 사회문화적 원인

- 사회적 합리성에 의한 학습 : 이상적 자녀수 규범설정
- 출생율저하→ 유자녀가구수감소 →이상적 자녀수에 대한 사회적 학습→ 저출산
- 가치관의 변화
- 결혼과 이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 개인주의적 가치관
- 맞벌이 부부 증가와 전통적 성역할 가치관의 갈등
- 보육에 대한 가치관의 혼재 : 국가 / 가족

〈표 8〉 결혼에 대한 견해 (2008)

(단위 : %)

	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한다	잘모르겠다
여성전체	100.0	20.0	41.6	33.3	3.1	0.5	1.5
20~30대	100.0	9.9	42.2	42.7	3.3	0.4	1.5
50세이상	100.0	36.7	41.3	17.9	2.3	0.6	1.2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08

〈표 9〉 결혼생활에 대한 태도 (2008)

(단위 : %)

	계	동의	전적으로 동의	약간 동의	반대	약간 반대	전적으로 반대
[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							
여성전체	100.0	38.8	4.3	34.5	61.2	30.5	30.6
20~30대	100.0	52.6	6.7	46.0	47.4	29.1	18.2
50세이상	100.0	25.1	2.0	23.0	74.9	30.4	44.5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08

〈표 10〉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2009)

(단위 : %)

	계	직업을 가지는 것이좋다	소계	결혼전 까지	첫 자녀 출산전 까지	자녀 성장후	결혼전과 자녀 성장후	가정일에 관계없이	가정일에 전념하는 것이좋다	모르 겠다
여성전체	100.0	86.6	100.0	4.0	5.9	10.8	23.5	55.9	8.0	5.4
20~30대	100.0	92.1	100.0	2.9	6.8	9.4	23.5	57.4	5.3	2.5
50세이상	100.0	77.8	100.0	5.8	5.3	12.9	23.6	52.3	12.9	9.3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09

### (3) 경제적 원인

- 청년층의 불안정한 고용여건 :
    - 결혼 및 출산시기 연장 --> 출산기간 및 자녀수 감소
  
  - 청년층의 기대소득과 기대소비의 격차 심화
    - 출생율저하-> 유자녀가구수감소-> 자녀의 소비성향 증가와 청년층의 기대소비 수준 향상->인구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 청년층의 소득수준 감소 -> 격차심화
- > 결혼기피, 출산기피...

## Ⅲ.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문제 : 파급영향

### ▶ 저출산 문제를 보는 관점

- 국가(정부)가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정책(조치)을 취할것인지, 아닌지 ?
- 저출산 추세가 얼마나 지속될 것 인지? : 점점 심화/ 중단 / 약화

1) 합리적 선택이론 : 아이에 대한 상대적 가격이 증가하는데 반하여 부부소득은 감소하거나, 아이와 다른 재화 사이의 효용함수의 변화에 따른 선택임

- 위험이론(Risk theory) : 아이를 갖음으로 갖게되는 불안정성(일정기간동안 낮은 소득, 일터복귀의 불확실성, 높은 소비지출, 피부양자에 대한 경제적 책임 등)보다 경제적 안정성(교육, 노동시장참여, 장시간노동과 높은임금, 저축가능성 향상 등)을 선호함

2) 저출산 올라미론 : “ 우리사회는 저출산함정에 빠진 것인가? ”

- 저출산 함정(Low fertility trap) : 저출산이 지속될 때 그 결과는 매우 파괴적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그 심각성에 비하여 한계를 갖고 있음. 이는 저출산 현상이 스스로 강도가 강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자기강화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함

3) 탈물질주의적 가치이론 : 사회인구학적 행위의 변화는 개인의 자아실현, 개인적 선호에 대한 만족감, 전통적 권위로부터의 자유 등에 의하여 촉진됨.

- 이혼율의 증가, 동거증가, 혼외출산 증가 등

4) 젠더, 가족, 시장 그리고 국가

- 여성관점에서의 저출산 문제 : 당사자 집단의 동의 없이 추진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

## 1.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일반적 문제

### 1) 인구성장을 둔화와 인구의 절대수 감소

- 2019년 0%에 도달한 후 감소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 2) 경제성장 둔화 및 국가경쟁력 약화

- 생산가능인구 감소, 평균근로연령 상승, 저축, 소비, 투자 위축에 따른 경제활력 저하, 국가경쟁력 약화

\* 생산가능인구는 '16년 총인구의 73.4%(3,619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핵심근로계층(25 ~ 49세)은 '07년 2,06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잠재성장율은 2000년대(4.56) →2020년대(2.91) →2040년대(0.74)로 하락

-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노동력 공급 부족 : 외국인근로자 유입비율 증가

\* 다문화 사회로 진입

- 산업현장 근로자의 고령화 :

\* 40대 이상 근로자 비중 1980년(15.7%) →2004년 (39.5%)

### 3) 사회복지 비용 증가와 세대간 갈등 : 노인부양비, 국민연금부담 증대

- 노인부양비 증가
- 노령연금수급자 증가로 연금재정 고갈문제 발생 : 2070년 제도부양비 100%
- 건강보험재정 지출 증가 : 노인인구의 의료비사용 비중(2010년 29.7%)

## 2. 저출산 고령사회와 가족문제

### 1)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에 따른 문제

- 노인부양부담(갈등) : 부모 고령화, 핵가족화, 여성취업률 증가, 부양의식 변화
- 자녀양육부담 : 핵가족화, 여성취업률 증가, 소자녀화(외동아 증가)

### 2) 다세대 공존기간 증가와 세대 간의 격차로 인한 갈등 가능성 확대

- 다세대 간의 인식, 가치관, 습관 차이로 인한 갈등과 적응문제

### 3) 독거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부양부담 증가 : 노인독거가구, 미혼독거가구 증가

- 독거가구에 대한 사회관계망 제공문제
- 노인독거가구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케어제공 문제
- 미혼 독거여성의 삶의 질 문제 : 소득보장, 부양부담 떠안기, 여가, 가치관 등..

### 4) 장기화 되는 노년기의 삶의 질 문제 대두

- 소득보장 (일과 수입), 건강(수발문제), 사회적 건강(여가, 교육)
- 노인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친족, 이웃관계에 대한 재조정

### 5)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른 문제

-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통합문제 : 언어습득, 가치관과 생활양식, 자녀양육 및 지역사회 통합문제 등

### 6) 지역, 계층, 연령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실태에 근거한 가족문제 발생의 다양성 증가

## IV. 저출산 고령사회의 가족과 교회

### 1. 교회의 기능과 역할

#### 1) 종교적 기능

- 복음전파와 생명구원 : 영적 약자에 대한 사랑

#### 2) 사회적 기능

- 사회화 기능 : 준거집단의 가치와 행동양식교육
- 신분부여 기능 : 대내외적 신분부여기능,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성경적 정의 실현
- 사회안정 및 사회통합, 연대기능 : 절대적 가치와 진리, 규범
- 사회통제 및 사회개혁기능 : 행위나 환경통제와 인도, 사회행동
- 사회복지 및 상호부조기능 : 구제, 돌봄, 치료, 예방

\*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 천국의 모형제시

- 천국에 있어야 하는 것 : 백성, 주권
- 천국에 없는 것 : 빈곤, 질병, 편견, 외로움, 미움, 시기, 질투...

### 2. 교회의 가족복지적 실천방안

#### 1) 교회의 물리적, 인적, 제도적 자원의 창의적, 적극적 활용을 통한 실천현장

- 물리적 자원 활용 : 교회건물 개방 및 재구성, 물질적 환원을 통한 실천
  - > 아동양육, 청소년, 다문화가족, 여성, 노인보호 기관 운영
- 인적 자원 활용 : 전문가, 풍부한 봉사자 활용
  - > 다양한 재능, 경험을 갖춘 인력의 활용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 교회연합체, 지자체, 지역공동체 등 지역사회 제 기관들과의 유기적 관계형성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복지 실천 거점으로서의 역할

## 2) 사회화, 재사회화를 촉진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 다양한 주제의 가정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 : 전생애발달적 관점, 성인지적 관점,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
- 예: 노후생활준비교육, life course 교육, life coaching, 가족관계 증진교육, 부부관계 향상교육, 예비부부교육, 부모교육, 부모-자녀관계 향상교육, 의사소통 훈련교육, 죽음준비교육, 싱글스를 위한 교육, 다문화 가족교육 등등
- 예 : 이혼, 재혼, 골드미스, 학대, 성 등 예민한 주제에 대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올바른 관점, 대처방안 등을 제공함

## 3) 다양한 역기능 가족을 위한 치료와 보호 기관

- 상담 및 치료기관
- 역기능 가족을 위한 옹호, 임파워먼트를 위한 중재기관

## 3. 사례 : 노인과 교회

### 1) 교회는 노인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 마음놓고 늙을 수 있는 곳 : 통전적 케어가 제공되는 곳
- 의미있게 끝까지 씌임받는 곳
- 지혜로운 노년기를 준비시키는 곳
- 노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계획을 세상에 보여주는 곳

### 2)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노인에게 어떻게 할까?

-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
  - 끝까지 품으신다고 함
  - (늙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심

- 늙은 남자, 여자를 무시하지 말라고 하심
- 가난한 노인을 선대하라고 하심
- 나는?
  -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려고 함 :
  - 노인문제의 사회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대처하려는 의지를 가짐





